

2024학년도

Final

이감국어
엣지
모의고사

제 1 차

모의고사 지문분석

[4~9] 인문 통합

진리에 대한 데이비드슨의 논증

* 지문 평가

복잡한 기호로 점철되어 있지만 (가)의 내용이 오히려 더 지극히 명료하고 쉽다. (나)의 경우 ‘인과적, 인식적’을 구분해야 하는 등 세밀하게 구분하여 읽어 내야 하는 개념들이 다수 존재한다. 오히려 (나)를 더 유의하여 읽어야 한다는 얘기가.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인문 - 철학 - 슬렁샷 논증

진리 대응설, 데이비드슨, 슬렁샷 논증, 동치, 공지시어, 원리 (I), 원리 (II), 특정 단칭어

(나) 인문 - 철학 - 삼각 측량 논증

회회론, 삼각 측량 논증, 믿음 체계의 정합성, 지각적 믿음, 지각의 인과론, 근접 원인, 원격 원인, 공통 원인, 삼각 작용, 의사소통, 자비의 원리

* (가) 지문 분석

문단1 : 진리 대응설을 반박한 슬렁샷 논증

1)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 예컨대 “눈은 희다.”라는 문장은 눈이 희다는 **사실에 대응될 때 진리**라는 이론을 **진리 대응설**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므로 매우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 ‘진리 대응설’이라는 상식적 관점을 소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진리란 곧 사실에 대응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예시로 든 “눈은 희다.”처럼,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문장은 진리라는 것이다.

2) 이에 대해 **데이비드슨**은 다윗이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진리 대응설**이라는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슬렁샷 논증’을 제시하였다.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데이비드슨’은 진리 대응설을 반박하는 관점에서 ‘슬렁샷(=돌팔매질) 논증’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너무도 당연히 보이는 진리 대응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될 수 있는지에 독해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문단2 : 슬렁샷 논증의 두 가지 원리

1) **슬렁샷 논증**은 진릿값이 항상 같은, 즉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장들은 동일한 사실에 대응한다는 **원리 (I)**과 참인 문장은 그 문장 내에서 개별 대상을 지시하는 **특정 단칭어**가 그것과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공지시어**에 의해 대체되어도 대응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 (II)**를 전제한다.

⇒ ‘슬렁샷 논증’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전제인 ‘원리 (I)’과 ‘원리 (II)’이다.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의미 파악이 어렵겠지만, 각각의 내용을 일단 정리해 두자. 글의 초점인 ‘슬렁샷 논증’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독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원리 (I)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장들은 동일한 사실에 대응
원리 (II)	특정 단칭어가 공지시어에 의해 대체되어도 대응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 ‘동치’와 ‘공지시어’라는 개념들이 새로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동치’는 두 문장의 진릿값이 항상 같은 경우를 뜻한다. 즉 동치인 두 문장은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경우만 있을 뿐, 한쪽만 참일 수는 없다.

반면 ‘공지시어’는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다른 언어 표현을 가리킨다.

[주목] 이때 ‘특정 단칭어’라는 개념도 주어져있음에 유의하자. 이와 같이 ‘A인 B’와 같은 형태로 정의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놓치기가 쉬우므로 더욱 주의해야만 한다.

2) 예를 들어 “철수는 총각이다.”라는 문장과 “철수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이다.”라는 문장은 **논리적 동치**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대응하고[→ 원리 (I)], “단군은 남자이다.”라는 문장에서 ‘단군’을 공지시어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으로 대체하여도 그에 대응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원리 (II)].

[맥락 짚기] 주어진 예시를 활용하자. 앞선 두 원리에 대한 설명에서 예시의 내용들이 각각 어떤 요소에 대응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 ⇒ “철수는 총각이다.”와 “철수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이다.”는 원리 (I)의 예시에 해당한다. 한쪽이 참이라면 다른 쪽도 항상 참이며, 한쪽이 거짓이라면 다른 쪽도 항상 거짓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 문장은 원리 (I)에 따라 동일한 사실에 대응한다.

⇒ “단군은 남자이다.”는 원리 (II)의 예시에 해당한다. 여기서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단군’의 공지시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장에 대응하는 사실, 즉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남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참고] 편의상 각각 별도의 예시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사실 앞선 예시에서 ‘총각’과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도 공지시어에 해당한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원리 (I), 원리 (II)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원리 (I)은 “철수는 총각이다.”와 “철수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이다.”와 같이 문장 간에 성립하는 관계라면, 원리 (II)는 ‘총각’과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와 같이 문장을 이루는 개별 대상, 즉 ‘특정 단칭어’ 간에 성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3) 이제 다음 네 문장들을 고려해 보자.

(1) 눈은 희다.

(2) ‘데이비드슨임’을 만족하는 유일한 대상 x = ‘눈이 흰 세상에서 데이비드슨임’을 만족하는 유일한 대상 x

(3) ‘데이비드슨임’을 만족하는 유일한 대상 x = ‘잔디가 푸른 세상에서 데이비드슨임’을 만족하는 유일한 대상 x

(4) 잔디는 푸르다.

⇒ 예시를 통해 원리 (I)과 원리 (II)를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예시를 통해 슬렁샷 논증을 이해할 차례다. 일단은 예시 문장만 제시되었을 뿐이니, 구체적 내용은 이어지는 문단과 함께 파악해 보자.

문단3 : 슬렁샷 논증의 전개

1) (1)은 참인 문장으로서 눈이 희다는 사실에 대응한다.

⇒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해하자. 이처럼 특정 문장이 사실에 대응한다는 것은 진리 대응설의 관점에 해당한다[문단1-1)]. 데이비드슨의 슬렁샷 논증은 진리 대응설을 반박하는 내용이므로, 일단 이를 수용하는 데에서 출발한 다음에, 이어질 논증에서는 이러한 대응 개념의 허점을 지적하게 될 것이다.

2) (2)는 ‘데이비드슨임’을 만족하는 유일한 대상 x 와 ‘눈이 흰 세상에서 데이비드슨임’을 만족하는 유일한 대상 x 가 동일함을 의미하는 문장이다. 그런데 (1)이 참이라면 (2)의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므로 (2)는 참이 되고, (1)이 거짓이라면 (2)의 오른쪽 항이 지시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2)는 거짓이 된다.

⇒ (1)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구별해서 접근하자. (1)이 참이라면, 즉 눈이 희다면, (2)에서 언급된 ‘눈이 흰 세상’은 곧 실재하는 세상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이 경우 (2)의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은 모두 세상에 한 명뿐인 데이비드슨을 가리키게 된다. 즉 (1)이 참이면 (2)도 참이 된다.

⇒ 반면에 (1)이 거짓이라면, 즉 눈이 희지 않다면, (2)에서 언급된 ‘눈이 흰 세상’은 실재하는 세상이 아니다. 이 경우 (2)의 오른쪽 항이 지시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눈이 흰 세상도, 그런 세상의

데이비드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1)이 거짓이면 (2)도 거짓이 된다.

[주목] 이 부분의 논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독해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지만,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게 느껴질 때는 논리의 결론만이라도 짚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결론은 (1)이 참일 경우 (2)도 참이고, (1)이 거짓일 경우 (2)도 거짓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은 진릿값이 항상 같은 논리적 동치에 해당한다.

3) 따라서 (1)과 (2)는 서로 논리적 동치가 되어 원리 (I)에 의해 눈이 희다는 동일한 사실에 대응한다.

⇒ (1)과 (2)의 진릿값이 항상 같으므로 둘은 ‘논리적 동치’이다. 앞서 살핀 원리 (I)에 따르면, 이 경우 (1)과 (2) 두 문장은 동일한 사실에 대응한다[문단2-1]}. (2)도 (1)과 마찬가지로 ‘눈이 희다는 사실’에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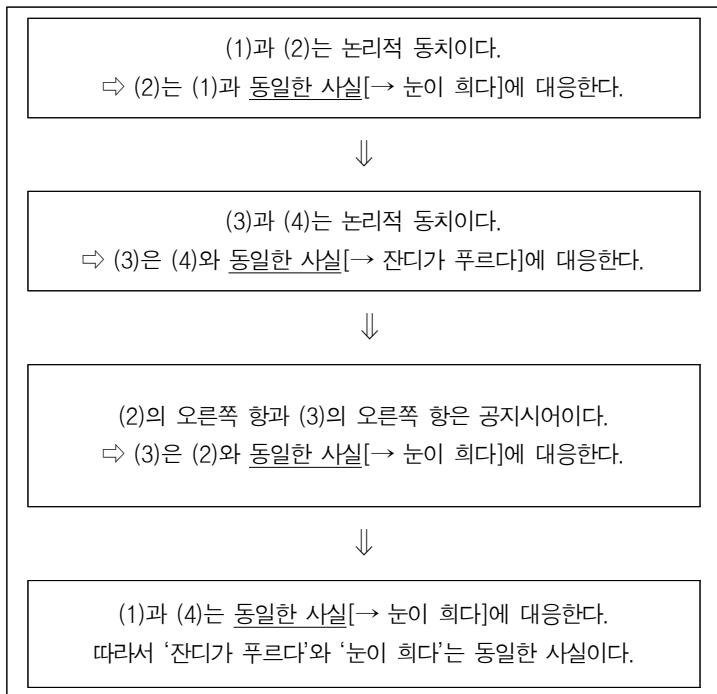
4) (4)도 참인 문장이므로 같은 논리로 (3)과 (4)도 논리적 동치이다.
⇒ (3)과 (4)는 ‘눈은 희다’가 ‘잔디는 푸르다’로 바뀌었을 뿐, 정확히 (1)과 (2)의 관계와 일치한다. 따라서 (3)도 (4)와 마찬가지로 ‘잔디는 푸르다는 사실’에 대응하게 된다.

5) 또한 (2)의 오른쪽 항과 (3)의 오른쪽 항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공지시어이므로 원리 (II)에 의해 (3) 역시 눈이 희다는 사실에 대응한다. (3)과 (4)는 논리적 동치로서 동일한 사실에 대응하므로 결국 “잔디는 푸르다.”라는 문장이 눈이 희다는 사실에 대응한다는 수용하기 힘든 결론이 도출된다.

⇒ (2)의 오른쪽 항과 (3)의 오른쪽 항은 모두 실재하는 세상의 데이비드슨을 가리킨다. 즉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공지시어’에 해당한다. 앞서 살핀 원리 (II)에 따르면, 하나의 언어 표현이 공지시어로 대체되더라도 그 문장이 대응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문단2-1]}. 즉 (3)은 (2)와 동일한 사실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1)과도 동일한 사실에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 (4) 또한 (3)과 논리적 동치임을 고려하면, 결국 (1)~(4)는 모두 동일한 사실에 대응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주목] 논증의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직관에 비추어 볼 때, 눈이 희다는 사실과 잔디가 푸르다는 사실은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둘이 동일한 사실에 대응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힘든 결론이다.

문단4 : 철학적 중요성이 부정된 대응 개념

1) 이 논증은 (1)과 (4)에 어떤 참인 두 문장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 앞서 살핀 문장 “눈은 희다.”와 “잔디는 푸르다.”는 모두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에 대응하는 평범한 예시일 뿐이다. 즉 이들을 “강물은

아래로 흐른다.”나 “지구는 둥글다.” 등으로 바꾸더라도 슬링샷 논증은 아무런 무리 없이 성립한다.

2) 이는 참인 문장들은 모두 동일한 사실에 대응[→ 수용하기 힘든 결론]하게 됨을 의미하고, 결국 진리와 관련하여 대응 개념이 더 이상 철학적 중요성을 지니지 못함[→ 진리 대응설 반박]을 의미한다.

⇒ 대응 개념에 근거한 문단3의 슬링샷 논증이 수용하기 힘든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대응 개념 자체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결국 데이비드슨은 슬링샷 논증을 통해, 진리 대응설에서 내세웠던 대응 개념의 철학적 중요성을 부정한 셈이다.

* (나) 지문 분석

문단1 : 회의론을 극복하려 한 삼각 측량 논증

1) 데이비드슨은 진리 대응설처럼 우리의 감각 기관에 주어지는 감각을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인식적 매개물로 간주하는 한 진리에 대해 **회의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맥락 짚기] 통합 지문에서는 (나)를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가)의 내용을 그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에서 데이비드슨은 ‘슬링샷 논증’을 통해 진리 대응설의 한계를 짚었고, (나)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진리 대응설이 필연적으로 ‘회의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글의 초점을 두고, 그렇다면 데이비드슨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데이비드슨’은 비판의 대상인 ‘진리 대응설’과 관련하여 진리 대응설이 ‘감각을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인식적 매개물로 간주’한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즉 데이비드슨은 ‘감각 ≠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인식적 매개물’로 본다는 점을 읽어 내야만 한다.

2) 그는 진리는 탐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한 **‘삼각 측량 논증’**을 제시하였다.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삼각 측량 논증’은 데이비드슨이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논증이다. 이를 이해하는 것을 글의 초점으로 삼아 읽어 내도록 하자.

문단2 : 지각의 인과론

1) 데이비드슨은 어떤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믿음 외에 없다고 보았다. 비개념적인 경험이나 감각 자료 같은 것은 믿음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오직 명제적 내용을 지닌 믿음들의 상호 지지, 즉 **‘믿음 체계의 정합성’**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전부라고 보았다.

⇒ ‘믿음의 정당화’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옳은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슨은 경험이나 감각 자료를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예컨대 “내가 직접 봤으니까 사실이 분명하다.”와 같이 감각 경험에 의존해서는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대신 데이비드슨이 제시한 증거는 ‘믿음 체계의 정합성’이다. 쉽게 말해 어떤 믿음과 연결된 다른 믿음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가 참임을 더 명확히 보여 준다면 이들은 믿음의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2) 그러나 믿음 체계의 정합성만으로는 그 속에 포함된 믿음들이 세계에 관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주목] 믿음 체계의 정합성만으로 올바른 믿음, 바뀔 말해 진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거짓된 믿음끼리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합성과는 별개로, 그 체계에 속한 개별 믿음이 ‘참’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다.

3) 그래서 데이비드슨은 믿음들 중에서 특히 감각을 체계화한 **‘지각적 믿음’**은 그것을 일으킨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지각의 인과론’**을 주장한다. 이에 따를 때 감각은 인과적 매개물로서 인과 연쇄의 한 고리이다.

⇒ ‘지각의 인과론’은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비드슨의 주장이다. 즉 ‘지각적 믿음’은 다른 믿음들과 달리 세계에 관한 올바른 믿음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지각적 믿음’은 그 원인에 의해 참, 거짓이 결정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주목] 진리 대응설은 감각을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인식적’ 매개물로 간주했다[문단1-1]]. 이와 달리 데이비드슨은 감각을 ‘인과적’ 매개물로 본다는 점도 짚어 두자. 감각을 통해 원인과 결과가 매개되면서 체계화된 지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관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의식하면서 글을 읽어 낼 필요가 있다.

문단3 : 지각적 믿음을 위한 조건들

1) 그런데 나의 지각적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감각, 즉 내 망막에 맺힌 상과 같은 근접 원인인지 아니면 세상 속의 물리적 대상인 원격 원인 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그렇다면 지각적 믿음을 결정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이 ‘근접 원인’과 ‘원격 원인’ 중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주목] 다시 말해, 분명 ‘감각’이 인과 연쇄의 한 고리이기는 하지만 [→ ‘근접 원인’으로서 지각적 믿음의 형성에 기여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참, 거짓을 결정하는 원인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원격 원인’이 지각적 믿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에 대해 데이비드슨은 원격 원인을 지각적 믿음에 대한 적절한 결정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그것의 사회적 성격이라고 말한다. 원격 원인은 나와 ‘타자’가 세계 속에서 공유하는 원인으로서, 나와 타자가 그것과 더불어 삼각 관계적 상황[→ 나-타자-세계]을 이룸으로써 각 주체들의 원격 원인은 세계 안에서 공통 원인으로 수렴된다.

⇒ 데이비드슨에 따르면 ‘지각적 믿음’의 참, 거짓을 결정하는 것은 근접 원인이 아니라 ‘원격 원인’, 즉 세상 속의 ‘물리적 대상’이다.

[주목]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 ‘근접 원인’과 달리, ‘원격 원인’은 ‘타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근접 원인’이 지각적 믿음을 결정한다고 본다면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게 되지만, ‘원격 원인’이 지각적 믿음을 결정한다고 본다면, ‘나, 타자’ 모두 그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보다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그런데 데이비드슨이 보기에 나-타자-세계 사이의 삼각 작용은 지각적 믿음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는 우리가 세계에 관한 지각적 믿음의 내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

[참고] ‘필요조건’은 어떤 명제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 ‘충분조건’은 어떤 명제가 성립하는 데 충분한 조건을 뜻한다. 즉 나-타자-세계 사이의 ‘삼각 작용’은 지각적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지각적 믿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 ‘원격 원인’만으로 지각적 믿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 타자’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즉 나와 타자가 각자의 생각을 혼자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각적 믿음을 형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단4 : 의사소통과 자비의 원리

1) 더 나아가 데이비드슨은 행위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그들이 서로의 해석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해석자는 화자의 사고와 주장을 최대한 일관적으로, 그리고 세계의 동일한 특징들에 대해 해석자 자신이 응답하는 것과 비슷하게 화자 역시 응답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자비의 원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 데이비드슨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조건이다. 여기서 ‘자비의 원리’란 타자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입장에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즉 비판적 태도보다는 수용적 태도로 타자의 발화를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인간 공동체에서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해석자이므로 우리가 갖는 믿음들은 대부분 일치하며 또한 거의 옳은 것이 된다.

⇒ 정리하자면 인간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는, 나-타자-세계 사이의 ‘삼각 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지각적 믿음’의 내용을 형성한다. 이러한 믿음은 ‘믿음 체계의 정합성’을 이루는 한편, ‘공통 원인’에 의해 결정되기에 올바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이 곧 데이비드슨이 제시한 ‘삼각 측량 논증’으로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 해당한다[문단1-2]].

* <보기> 분석

<보기> 문단

㉔ 진리라는 것이 어떤 실질적 속성을 지닌 것이라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예컨대 “눈은 희다.”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말은 그 문장과 세계 사이에 정확한 대응 관계[→ 진리 대응설]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문장을 포함하는 믿음 체계가 정합적[→ 데이비드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눈은 희다.”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것은 눈이 희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때의 참이란 단지 “눈은 희다.”라는 문장의 인용 부호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진리란 탐구의 목표[→ 데이비드슨의 관점]가 아니고 잉여물일 뿐이다.

[백락 짚기] 새로운 관점들이 <보기>에 주어졌다. 이들이 지문에서 다룬 ‘진리 대응설’, ‘데이비드슨’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의식적으로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여기서 ‘정확한 대응 관계’는 진리 대응설의 관점이다[(가)의 문단1-1]]. ‘믿음 체계가 정합적’[(가)의 문단1], ‘진리란 탐구의 목표’[(나)의 문단1-2)]는 데이비드슨의 관점이다. ㉔는 이들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으로서, 진리의 실질적 속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회의론’에 가까워 보인다[(나)의 문단1].

㉕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확증 가능한 경험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경험은 곧 ‘감각 기관의 자극’이며 이것이 세계로부터 주어진 유일한 단서이다. 이 감각 기관에 주어진 감각 자극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계는 자연 과학, 즉 법칙의 영역에 의해 완전히 기술될 수 있고, 세계에 관한 우리의 믿음도 법칙 영역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 ㉔는 경험과 감각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법칙 영역에 의해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적어도 데이비드슨도 ‘감각’이 인과적 매개물로서 ‘지각적 믿음’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나)의 문단2-3)]. 다만 그것이 ‘원격 원인’처럼 지각적 믿음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나)의 문단3-2)]. 즉 ‘데이비드슨’은 감각이 믿음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㉔번 선지는 적절하다.

[10~13] 사회

조직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 지문 평가

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마땅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지문이다. 제시된 두 전략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중에서 예시로 언급된 각 조직에게 더 적합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사회학 -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용 전략, 방어 전략, 역방향 연쇄 짓기, 책임 귀인, 실제적 책임, 도의적 책임, 동화 편향

* 지문 분석

문단1 :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위기 상황에 처한 조직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구성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지침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메시지가 구성원들에게 잘 수용되도록 하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크게, 조직이 위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수용 전략과 위기 자체를 부인하거나 위기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어 전략으로 나뉜다.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가는 위기의 책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라 다르다.

⇒ 조직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제시되었다. 이때 조직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수용 전략	방어 전략
위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	위기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 책임을 거부하는 메시지

문단2 : 역방향 연쇄 짓기와 책임 귀인

1) 사람들은 조직의 위기 책임성을 판단할 때 역방향 연쇄 짓기의 경향을 보인다. 역방향 연쇄 짓기는 사람들이 후속 행위를 보고 선행 행위의 원인을 거슬러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은 위기보다 후속 행위인 메시지를 보고 조직의 책임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 ‘역방향 연쇄 짓기’에 대한 설명이다. ‘위기’가 선행 행위면, ‘메시지’는 후속 행위다. 따라서 사람들은 메시지를 보고 위기의 원인을 추론하게 되므로, 조직이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는지에 따라 위기가 조직의 탓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2) 따라서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책임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책임 귀인은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누군가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중이 조직에 책임을 귀인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메시지는 더 잘 수용된다. ⇒ ‘조직에의 책임 귀인’과 ‘메시지의 수용’ 간의 관계가 주어졌다. 메시지가 잘 수용되려면, 조직은 자신에게의 책임 귀인 정도가 낮아지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택해야만 한다.

조직에의 책임 귀인 정도↓ ⇨ 메시지 수용↑

문단3 : 실제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에 대한 판단

1)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은 실제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으로 나뉜다. 실제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원인의 소재가 어디인가, 조직의 내적 통제 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등의 실제적 요소를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도의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위기의 실상보다 조직에 대한 고정 관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 조직의 책임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실제적 책임	도의적 책임
원인의 소재, 조직의 내적 통제 등의 실제적 요소 고려	조직에 대한 고정 관념의 영향을 받음

2) 일반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반기업 정서가 고정 관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방어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도의적 책임 귀인의 정도가 더 높아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 그중 ‘도의적 책임’에 대한 예시가 주어졌다. 기업의 경우, 방어 전략을 택하면 도의적 책임 귀인 정도가 높아진다. 즉 메시지가 잘 수용되지 않는다.[문단2-2)]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수용 전략을 택하는 편이 더 낫다.

문단4 : 군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1) 한편, 군사적 충돌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군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공중의 책임 귀인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경우와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 충돌을 일으킨 외부 세력에 책임을 묻거나 군의 대응 방법을 정당화하는 등의 방어 전략은 군에 대한 기대도 손상시키지 않고 공중이 군에 실제적 책임을 묻는 정도도 낮출 수 있다.

⇒ 반대로 군의 경우에는 방어 전략을 택하는 편이 낫다. 오히려 그것이 군에 대한 기대[→ 군에 대한 고정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도의적 책임 귀인 정도를 낮추는 것이다.

[주목] 실제적 책임을 묻는 정도도 낮아진다는 표현에 유의하자. 이는 방어 전략이 도의적 책임을 묻는 정도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책임을 묻는 정도도 함께 낮춘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기업과 군 조직의 경우를 구분하여, 더 적합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군
수용 전략 ⇨ 도의적 책임 귀인↓	방어 전략 ⇨ 도의적 책임 귀인↓ 실제적 책임 귀인↓

2) 그러나 군 조직이 사과를 하거나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는 등의 수용 전략을 사용한다면 위기 대처가 뛰어난 강한 군대라는 공중의 보편적 기대와 동떨어져 오히려 도의적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 군이 방어 전략을 택하지 않고 반대로 수용 전략을 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군에 대한 공중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결국 조직이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때는 공중이 기준에 지니고 있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를 더 타당한 것으로 지각하는 동화 편향을 정확하게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동화 편향’에 대한 설명이다. ‘기준에 지니고 있던 태도’는 1)에서 언급한 조직에 대한 기대, 즉 고정 관념에 대응하여 이해하면 된다.

* <보기> 분석

<보기> 문단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갑국과 을국은 오랜 기간 동안 영토 분쟁으로 인해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겪어 왔다. 최근 을국의 군인 몇 명이 갑국의 국경을 몰래 넘어와 1시간이 지나서 갑국의 군에 발견되어 교전을 벌인 후 다시 국경을 넘어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을국의 군인들이 국경을 넘을 당시, 갑국의 민간 기업인 A사가 갑국의 군에 납품한 경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에 갑의 군 당국과 A사는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려 한다.

[맥락 짚기] 지문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위기 상황이 구체적 예시로 주어졌다[문단4-1)]. 이때 ‘갑의 군 당국’과 ‘민간 기업 A사’가 각각 어떤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기자회견에서 활용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 A사의 경우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반기업 정서를 고려하여 수용 전략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고[문단3-2)], 군 당국의 경우 군에 대한 공중의 기대를 고려하여 방어 전략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문단4-1)].

기업	군
수용 전략 ⇒ 도의적 책임 귀인↓	방어 전략 ⇒ 도의적 책임 귀인↓ 실제적 책임 귀인↓

∴ 위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수용 전략에 해당한다[문단1]. 그러나 군 당국이 수용 전략을 택하는 것은 위기 대처가 뛰어난 강한 군 대라는 공중의 기대와 동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의적 책임 귀인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문단4-2)]. 도의적 책임 귀인 정도가 낮아지려면 방어 전략을 택해야 한다. 따라서 ②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이감

[14~17] 기술

거미 모방 진동 센서

* 지문 평가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다. ‘거미 모방 진동 센서’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그 원리를 파악하면 된다. 기술 지문답게 개념들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이를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자.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기술 - 측정 기술 - 거미 모방 진동 센서

생리적 신호, 민감도, 진동 감각 기관, 거미 모방 진동 센서, 폴리머 기관, 박막, 도선, 저항, 게이지 팩터, 스트레인, 선택도

* 지문 분석

문단1 : 진동 센서

우리 몸의 심박수, 호흡 등의 **생리적 신호**들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민감도**가 높은 **진동 센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거미의 진동 감지 기능을 모방해,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진동 센서가 개발되었다.

[맥락 짚기] 문단1에서는 의식적으로 글의 초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는 ‘민감도가 높은 진동 센서’를 화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진동 센서’와 연결 짓고 있다. 즉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 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동 센서의 원리가 이 글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문단2 : 거미 모방 진동 센서의 구조

1) 거미의 발목 부근에는 **점탄성 물질**로 된 **얇은 막**을 **단단한 외골격**이 덮고 있는 구조의 **진동 감각 기관**이 위치한다. 이 기관에 존재하는 **미세한 틈**이 진동에 의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아무리 미세한 진동이라도] 신경 세포에 의해 감지된다.

[맥락 짚기] 거미의 진동 감지 기능을 수행하는 ‘진동 감각 기관’의 구조를 묘사하고 있다. ‘얇은, 단단한’과 같은 묘사가 주어졌으므로 대략적으로라도 그 모습을 떠올려 보는 편이 좋다. 그래야만 이어지는 설명을 쫓아가기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2) **거미 모방 진동 센서**는 이러한 구조를 모방하여, 점탄성 부전도체인 **폴리머 기관** 위에 전도체인 백금으로 된 **박막**을 쌓은 뒤 양쪽 끝을 잡고 일정한 힘으로 굽혔다 펴서 만든다. 굽히는 과정에서 백금 박막 표면에 수많은 **미세 균열**들이 생기고, 다시 펴면 이 균열들은 거의 붙어 있는 상태가 된다.

⇒ 이 글의 중심 화제에 해당하는 ‘거미 모방 진동 센서’는 거미의 진동 감각 기관의 구조를 모방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요소들이 ‘진동 감각 기관’의 요소들에 각각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의식했어야 한다.

진동 감각 기관	거미 모방 진동 센서
얇은 막	폴리머 기관
외골격	백금 박막
미세한 틈	미세 균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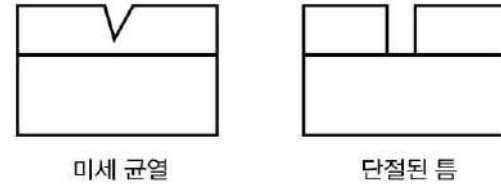
3) 이들은 진동 감각 기관에서의 **미세한 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깊이와 개수는 가해진 **외력**에 비례한다.

[맥락 짚기]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여기서의 ‘외력’은 진동 센서를 굽힐 때에 가하는 힘을 가리키겠다.

외력 ↑ ⇨ 미세 균열의 깊이, 개수 ↑

4) 다만 너무 강한 힘으로 굽히면 균열이 아니라 아예 **단절된 틈**이 생성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목] 다만 가해진 외력이 너무 강하면 균열의 깊이가 너무 깊어져서, 아예 ‘단절된 틈’이 만들어진다. 이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미세 균열’과 ‘단절된 틈’을 구분하고, 후자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문단3 : 거미 모방 진동 센서의 원리

1) 백금 박막의 양쪽 끝에 **도선**을 연결하여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

⇒ 진동 센서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선’을 연결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2) …… 이때 그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 **저항**이 작용한다. **저항**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전류가 흐르는 **전도성 통로**의 길이에 비례한다.

[맥락 짚기]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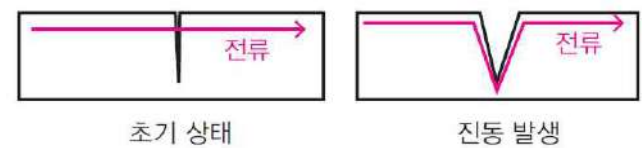
전도성 통로의 길이 ↑ ⇨ 저항 ↑

3) 이렇게 전압만 가하고 여타의 외력이 가해지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의 저항을 **초기 저항**이라 한다. 초기 상태에서는 균열들이 거의 붙어 있어서, 이를 뛰어넘어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매우 낮다.

⇒ 그대로 이해하자. ‘초기 저항’은 매우 낮다. 균열이 존재하더라도 초기 상태에서는 균열들이 거의 붙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문단2-2)].

4) 그런데 진동과 같은 외력이 가해지면 그 세기에 비례하여 **균열**이 벌어지므로 전류는 균열을 뛰어 넘지 못하고 균열의 표면을 따라 V 자로 흐르게 되어 전류가 흐르는 거리가 늘어난다.

⇒ 그런데 ‘생리적 신호’ 등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면 균열이 벌어지게 되어, 전류는 더 먼 거리를 타고 흐르게 된다.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주목] 전류가 흐르는 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도성 통로의 길이’가 늘어난다는 뜻이다[문단3-2)]. 다시 말해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는 뜻이다. 즉 ‘거미 모방 진동 센서’는 이렇게 진동이 발생하면 ‘저항’이 증가한다는 점을 활용한다.

5) 이는 균열의 깊이와 균열이 벌어진 정도에 비례한다.

[주목]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다만 앞선 내용들을 함께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균열의 깊이’는 진동 센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굽히는 힘에 비례하는 것이다[문단2-3)]. 즉 굽히는 외력이 강할수록 균열이 깊게, 많이 만들어지고[→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균열이 만들어질수록 진동이 발생했을 때 전류가 뛰어 넘지 못하는 균열의 개수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똑같은 세기의 진동’이 발생하더라도, ‘저항’은 더 커진다.

굽히는 외력 ↑ ⇨ 미세 균열의 깊이, 개수 ↑
⇨ 같은 세기의 진동에 대한 전도성 통로의 길이 ↑ ⇨ 저항 ↑

⇒ 또한 진동에 의해 ‘균열이 벌어진 정도’는 그 세기에 비례한다[문단 3-4]}. 즉 강한 진동일수록, 균열은 더 많이 벌어지고, 따라서 ‘저항’도 더 커지는 것이다. ‘거미 모방 진동 센서’는 이런 식으로 진동의 세기를 변화된 저항값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진동의 세기 ↑ ⇨ 균열이 벌어진 정도 ↑
⇨ 전도성 통로의 길이 ↑ ⇨ 저항 ↑

6) 진동 센서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게이지 팩터**는 전류가 흐르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변화된 저항값**을 **초기 저항값**으로 나눈 후, 이를 다시 **스트레인**으로 나누어 구한다. **스트레인**은 외력에 의해 변형된 양을 %로 표시한 값으로, 진동 센서에서는 외력에 의해 **균열의 간격이 벌어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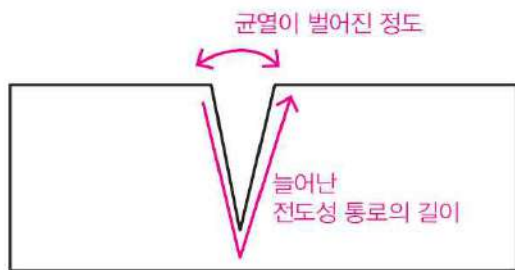
[맥락 짚기] ‘게이지 팩터’를 구하는 방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 개념들 간의 관계는 꼭 수식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만 문제를 풀 때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ext{게이지 팩터} = \frac{\frac{\text{변화된 저항값}}{\text{초기 저항값}}}{\text{스트레인}}$$

7) 진동에 의해 전도성 통로의 길이가 늘어난 정도가 **스트레인**[→ 균열이 벌어진 정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진동 센서는 높은 게이지 팩터를 갖는다.

⇒ ‘거미 모방 진동 센서’가 높은 민감도를 갖는다는 것은[문단1], 높은 ‘게이지 팩터’를 갖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스트레인’에 대해 ‘변화된 저항값’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균열이 벌어진 정도’에 비해 V자 표면을 따라 전류가 추가로 흘러야 되는 거리는 훨씬 더 길기 때문이었다[문단3-4]}.



[주목] 여기까지의 설명을 통해, 왜 ‘단절된 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지도 추론할 수 있다[문단2-4]}. ‘거미 모방 진동 센서’는 이렇게 전도성 통로의 길이가 ‘늘어난다’는 점을 활용하여 진동을 감지하게 된다. 그런데 단절된 틈이 생기면, 애초에 전류가 흐를 수 ‘없으므로’ 진동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세기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단절된 틈’이 아닌, ‘미세 균열’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문단4 : 거미 모방 진동 센서의 한계

그런데 거미 모방 진동 센서의 우수한 민감도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온갖 진동에 반응할 수 있으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만 반응하는 정도인 **선택도**가 낮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하이드로겔 등의 소재로 하단 기관을 제작함으로써, 특정 신호 이외의 신호는 **기관에서 흡수하여** **백금 박막에는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여기서 신호가 ‘기관’을 거쳐 ‘박막’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챙겨 두자. 즉 신호는 하단 기관을 통해, 그 위에 쌓인 백금 박막으로 전달되는 것이다[문단2-2]}.

*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 **예비 실험**: 거미 모방 진동 센서의 ‘제작 과정’에서 **미세 균열**을 생성하기 위해 외력을 가해 **2%의 스트레인**을 발생시켰고, 하단 기관의 소재는 **하이드로겔**로 하였다.

[맥락 짚기] ‘거미 모방 진동 센서’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게이지 팩터’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문단3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거미 모방 진동 센서’는 그 제작 과정에서 ‘미세 균열’을 생성하기 위해 굽히는 외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문단2]. 여기서 하단 기관의 소재를 ‘하이드로겔’로 한 것은 ‘선택도’를 높이기 위함일 것이다[문단4]}.

2) 민감도를 시험하기 위한 ‘측정 과정’에서 1%의 스트레인을 발생시켰을 때 1,600의 게이지 팩터를 얻었다.

⇒ ‘게이지 팩터’는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관련 수식을 떠올려서 활용할 준비를 해 두자[문단3-6]}.

$$\text{게이지 팩터} = \frac{\frac{\text{변화된 저항값}}{\text{초기 저항값}}}{\text{스트레인}}$$

3) ○ **본 실험**: 센서의 제작 및 측정 과정을 하나씩 달리하여 민감도를 시험한다. 나머지 작동 조건은 예비 실험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 ‘제작 과정’에서 스트레인을 2.5%로 키운다면, 더 많은 균열들이, 더 깊게 생성된다[문단3-5]}. 이는 그만큼 같은 세기의 진동이 발생하더라도[→ ‘측정 과정’의 스트레인을 그대로 유지해도] ‘변화된 저항값’이 더 커진다는 뜻이다. 즉 게이지 팩터는 지금의 값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①번 선지는 적절하다.

굽히는 외력 ↑ ⇨ 미세 균열의 깊이, 개수 ↑
⇨ 같은 세기의 진동에 대한 전도성 통로의 길이 ↑ ⇨ 저항 ↑